

임용단기 합격 후기

경기 역사 한태현 선생님

과목명 | (전공역사) | 스테디 여부 | (O) | 단권화 여부 | (X)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9년 임용시험에 재수합격한 수험생입니다. 임용시험이란게 정말 처음 시작할 땐 너무나 막막하고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열심히 노력하니 결국 합격까지 오게 되었다는것에 뿌듯하고 아직까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범대를 재학중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1학년 때 임용기출문제를 보고 너무 어렵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의 수준의 시험이라고 생각해 겁먹고 회피했던 것이죠. 학교생활과 병행하던 학군단(ROTC)에 전념하며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였고 졸업하던 해에도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중에 임용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획없이 기출문제정도만 조금 훑어보는 정도와 임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7년 6월 30일에 전역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수시절의 공부는 임용 준비생들이 주로 보는 기본 개론서들을 구비하여 읽기 시작했고 교육학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강 기본반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정도를 공부하니 대략 기본 개론서 3회독, 복소년 기출문제집 분석완료, 2명의 교육학 강사의 기본반을 수강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고 18년 임용시험을 응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전교합 56점으로 컷에서 15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1년을 온전히 투자한다면 해볼만 하다는 희망을 품게되었습니다. 1차 탈락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19년 임용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스테디를 처음으로 해보면서 2차시험에 대한 준비를 미리 했는데 그것이 제가 재수합격을 할 수 있었던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수업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불안한 2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미리 한번 2차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실력이 어느정도 향상되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5개월밖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탈락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타격이나 우울함 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18년 1월 2일자로 바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초수시절 공부는 개론서들을 3회독하는 정도로 그쳤지만 그때 기본기를 쌓아 냈기 때문에 재수시절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재수때는 김종권 선생님의 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였는데 이러한 인강들도 어느정도 기본기가 있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개론서를 혼자 3회독하며 기본기를 쌓아두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수시절의 공부를 시작하며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저는 김종권 선생님의 1년 프리패스 강의를 신청하고 교육학도 이번엔 기본반만 듣는 것이 아닌 1년 과정을 끊고 성실하게 수강하며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인강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인강만으로는 임용시험에 대한 공부가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개인공부에 대한 계획도 작성하였습니다. 인강은 성실하게 수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고 제 개인적인 공부 계획의 핵심은 교과서와 서브노트 작성이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중 6종 정도를 정독하였고 세계사는 2종, 동아시아사는 1종을 정독하면서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론서에 대한 서브노트도 만들었는데 한국사는 6종 정도의 교과서를 요약정리하며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서양사는 서양사개론을 통해서 만들고 동양사는 동양사개론(전근대)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근대)를 통해서 각 과목별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역교론은 따로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고 기출분석과 남, 녹, 파, 갈색책의 다독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학도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만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강 커리를 따라가며 제 공부를 병행하면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였고 서브노트 제작은 5~6월경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인강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제 공부로는 개론서를 다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강을 듣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저는 완전학습을 추구하였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 씩이고 돌려보며 이해하고 넘어갔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않으면 질문게시판에 질문을 수도없이 올려가며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김종권 선생님께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지만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복습지를 미루지 않고 인강을 듣고 다음날에는 해당 분량을 복습하며 공부하였고 문제풀이를 할 때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풀며 복습하였습니다. 공부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19시부터 22시까지 3시간으로 해서 총 10시간을 계획하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모두 지키지 않고 몸이 아플땐 쉬고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지키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켜가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가 끝난 뒤에는 쉬고싶었기 때문에 맥주 한잔하며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잠들었습니다. 다른분들을 보면 자기전에도 계속해서 그날 배운 내용을 곱씹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정도까지는 하지 않고 자기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자고 다음날에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하였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18시까지만 공부를 하였고 저녁에는 쉬었습니다. 친구는 한달에 한번만 만났고 만났을때는 신나게 놀았지만 여행이나 몇 일씩 노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하는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여행이나 명절같은것도 일절 챙기지 않고 하루 정도는 쉬었지만 대체로 공부를 하며 보냈습니다. 또 제 합격 팁 중 하나인 스테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스테디로 교육학은 오프라인 짝스테디, 전공은 온라인 밴드스테디를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모두 문제풀이 스테디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혼자 공부할 때의 나태함이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었으며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나 다양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었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전 감각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스테디는 서브노트 작성이 끝날 무렵인 5월달쯤부터 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스테디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전반기에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후반기에 스테디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스테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인강이나 자기 공부를

못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터디 분량은 1일 1~2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하시는게 인강을 듣고 개인 공부를 하는데도 지장을 주지 않고 계획적으로 공부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임용단기에 수기를 제출하는점을 고려하여 김종권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임용 시험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예전처럼 절간에 들어가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중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싸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내용의 개론서들 속에서 인강을 듣게되면 중요한 지점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강독부터 모의고사까지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들이 정말 편리하고 수험생은 쉽게 스펀지처럼 내용을 흡수할 수 있게됩니다. 학원 선생님들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그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으로만 연구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바쁜 수험생들보다 더 확실하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합격을 위해서 학원강의 수강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직강보다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직강은 보다가 졸 수도 있고 이해 안되는 부분을 모두 파악하며 완전학습을 하기 어렵습니다. 인강이라면 돌려서 볼 수도 있고 졸리면 잠깐 멈춰놓고 쉬고나서 다시 재생하여 들을 수 있다는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권 선생님의 수업은 임용에 특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출제되었던 내용,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수업을 하십니다. 팀티칭이 아닌 혼자서 그 많은 개론서 내용들의 핵심을 수험생들에게 전달하고 분석하신다는게 대단하다고 느껴왔습니다. 실제로 이번 19년 시험에서도 김종권 선생님의 강의와 모의고사 등에서 적중했던 문제들이 적지 않았고 제가 김종권 선생님을 믿고 1년 커리큘럼을 성실하게 따라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재수시절의 공부에 대한 수기가 작성된 것 같아 이번에는 2차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차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무조건 2차 스터디를 시작하세요. 저는 17년 6월 30일에 전역하여 초수로 5개월을 준비 후 2018년 시험을 쳤는데 90%이상 1차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하였지만 2019년 시험의 합격이 목표였으므로 바로 2차 스터디를 구해서 수업, 면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토대가 되어 재수 때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재수 공부 중에도 2차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이 더 힘들고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앞으로 2차가 계속 어려워지고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1차에만 올인하기 보다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2차 수업실연문제는 그동안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있던 조건과 형식의 틀을 깨어버려 한층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짧은 구상시간에 이러한 변화된 문제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임기응변 능력이 필요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 스터디를 하면서 고정된 틀과 방법을 지양하고 많은 조건과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통해 연습하기를 추천합니다. 또 스터디룸 보다는 넓은 교실에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교실을 구하기 어려워 스터디룸에서 수업실연을 연습하였는데 넓은 교실에서 연습할때랑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는걸 느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발성도 잘 안되고 시선처리, 자신감, 현장의 느낌이 나오질 않습니다. 꼭 넓은 강의실이나 학교 교실 등에서 분필을 사용해서 연습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교과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수업실연의 주제가 내용지식 측면으로는 쉽고 간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장 구상시간에는 머리속이 하얗게 변하고 긴장되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시간도 너무나 촉박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삼국간섭의 삼국을 영프러라고 설명하거나 유럽친구들이라고 얼버무리는 경우,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 등 내용지식의 오개념으로 실수를 하신 분을 적지 않게 보았고 그분들은 역시나 결과가 좋지 못하였으며 그 부분에서 큰 감점이 있었다고 예상됩니다. 자신만의 수업 틀을 만들어 두시면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위에 복기에도 적어놓았지만 간략하게 표현하면 주위환기, 동기유발, 학습목표확인, 전개1(강의, 자료 활용), 순회1(개별 피드백), 전개2(활동), 순회2(모둠 피드백), 활동발표, 수업 간 느낀점 발표 정도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았었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면 실제 문제에서 전개1, 전개2만 실연하라고 할 경우 나의 틀에서 필요없는건 빼고 추가된 조건을 삽입하고 틀대로 진행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만들고 여러 번 실연을 해보면서 각 단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발문과 학생의 반응이 나오는지도 미리 몇 가지 정해두고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실연이 가능합니다. 유창성보다는 조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정말 엉망진창인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너무 많아서 조건을 이행하느라 유창성을 포기하고 기계적으로 조건을 이행하는 수준인 수업실연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유창해 보이지만 조건이 미흡한 수업실연보다는 조건에 충실했던 제 수업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업의 자연스럽고 유창한 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채점위원들도 객관적인 지표인 조건을 중점으로 채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규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력교사처럼 능수능란하게 수업을 할 수 없다는걸 채점위원들도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하고 버벅거리더라도 조건에 충실한 수업을 실연할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을 정말 못한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제 자신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도 있었지만 누가 봐도 잘한 수업이 아니면 못한 수업이라고 생각했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또 선배들과 여러 선생님들에게도 피드백 받아 성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못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저는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때문에 계속해서 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저에게 수업이 처음과 다르게 빠르게 변화된다, 피드백을 수용하고 잘 받아들인다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자신만의 고집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변화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발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장점과 피드백을 수용하여 성장 폭을 크게 넓히시길 추천합니다.

- 후배 예비선생님들을 위한 학습팁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저의 신조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1. 노랑진에 있는 수험생들을 이겨야한다, 2.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이 두가지를 수백번씩 되뇌이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노랑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었고 늦잠을 자거나 공부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계획이 어긋났을 때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가장 빠르다고 되뇌이며 지쳐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체력관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먹는 것 만큼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데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험생이 공부외에 따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먹는거라도 원하는 것을 먹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고 활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삼수로 접어들게 되었다면 운동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전 재수였기 때문에 어느정도 체력이 남아 있었고 이 기간에 순전히 공부에만 올인하여 합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니 체력이 너무 떨어짐을 느꼈기 때문에 짧게 모든 에너지를 짜내어 합격할 수 있다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험기간이 길어질 경우 어느정도 운동을 통해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시는걸 추천합니다.

친구를 한달에 한번만 만나고 일제 인간관계를 거의 단절하였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카카오톡도 계정을 삭제해 버렸고 정말 친한 2~3명 말고는 연락도 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였으며 가족여행이나 명절도 수험생에게 사치라고 생각하며 챙기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합격 후에 모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합격을 위해선 어느정도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애도하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여가생활도 챙기면서 공부한다면 합격이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공부를 끝내고 저녁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본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보며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공부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독될 수 있는 게임이나 계속해서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무언가는 피하시길 권합니다.

공부 장소는 사람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지만 저는 독서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제 돈으로 독서실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빠지는 날 없이 꾸준히 출석할 수 있었고 독서실 1인용 개인실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게 경제적으로는 저렴하지만 임용시험에 많은 책을 두고 공부해야하고 책상 공간활용 또한 많기 때문에 독서실을 추천합니다. 집에서 공부하는건 마음이 나태해지고 침대, 티비,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유혹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정말 1년이라도 빨리 합격해서 탈출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점점 더 난해해지고 과연 정말 교사를 뽑는 시험인가 싶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지식인가 싶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학생 수는 줄어들다 보니 선발을 위해서 불가피한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모두가 같은 동일 조건에서 시험을 치룹니다. 거기서 승리해서, 합격해서 탈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1년만 모든 것을 꼭 참고 정말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바짝 에너지를 쏟아서 효율적으로 빨리 합격하여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병행하는 분도 계신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아니라면 제 생각은 올인을 추천합니다. 임용시험은 1년싸움입니다. 제가 지금 최종 합격을 하였지만 다시 시험을 친다면 이미 2차시험 준비를 하는동안 많은 내용지식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다시 노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사람보다 올인하는사람이 절대적인 시간으로 보나 효율로 보나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장교생활을 하면서 퇴근 후 공부를 해보려 했지만 이미 일과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단단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초수생과 장수생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기본기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재수생과 장수생은 크게 다르지 않고 1년간의 성과로만 판가름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싸움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1년을 올인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에너지가 남아있다면 놀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3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5월에 시작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월부터 시작해야 인강 프리패스를 착실하게 따라가기 수월합니다. 또 인강을 미루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무슨 요일에 어떤강의를 몇 개를 들을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미뤄지는 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란게 한번에 몰아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계획적으로 분배하여 효율적으로 공부 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해주신 합격수기는 2019학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예비선생님들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